

2007. 10. 15 제177호

세계도시동향

세계도시

2007. 10. 15 제177호

목 차

[벤치마킹 사례]

런던市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

도시경영·경제

1. 관광객 94%가 시내관광에 만족 (브라질 상파울루市)
2. 창조·문화 산업이 경제 발전의 견인차 (런던)
3. 사업별 평가결과를 토대로 예산 배분 (일본 교토府 무코우市)

디지털도시

4. '벨리브' 자전거 정류장에 블루투스 시스템 도입 (파리)

복지·문화

5. 노약자와 장애인의 버스 이용 무료화 (영국)
6. 학교 내 왕따 방지 실행헌장 제정 (영국)
7. '2007 베를린 자조시장' 개최 (베를린)
8. 해변에 장애인용 매트 설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9. '교육, 양육, 돌봄'을 위한 지역전략 제안 (베를린)

목 차

도시환경

10. 거리에 나무 심으면 세금 감면 (브라질 상카를로스市)
11. '기후변화 챔피언' 임명 (영국)
12. '에코포인트 제도' 도입 (일본)
13. 수도관을 이용한 발전시설 완공 (일본 요카이치市)

도시교통

14. '스마트 포스터'로 교통정보 제공 (런던)
15. 실시간 주차정보 검색 사이트 운영 (파리)
16. 버스 요금은 내리고 저소득층 지원은 높여 (런던)

도시계획·건설·주택

17.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그린벨트 개발 불허 (런던)
18. 디자인과 재료산업 간 네트워킹 추진 (영국)
19. 도시계획시스템에 디자인 표준 도입 제안 (영국)

방재·안전

20. 자동 공중화장실 철거 검토 (시애틀)
21. 주택 내진 건축 시 인센티브 강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市)

[벤치마킹 사례]

런던市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

<주요 내용>

- 영국에서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은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조직으로, 경영에 따른 수익금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업체나 공동체에 재투자되고 있음.
 - 사회적 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제적·사회적 기준은 아래와 같음.

<표 1> 영국에서 사회적 기업의 9가지 기준

경제적 기준	사회적 기준
- 해당 조직에서 유급 일자리를 제공하는가? - 상당 수준의 경제적 리스크를 부담하는가? - 정부에서 독립돼 자치권을 갖는가? - 재화 및 용역을 거래하는가?	- 시민이 조직을 설립했는가? - 의사결정이 외부 이해관계자의 소유권에 기반을 두지 않고 있는가? - 일터에서 참여주의가 실현되는가? - 조직 외부로 이익분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가? - 명시적으로 공동체 또는 사회적 편익이 있는가?

- 런던市에는 2004년 현재 5300개의 사회적 기업에 20만 명이 참여하고 있어, 사회적 기업 1개소당 평균 37.7명이 참여하고 있음.
 - 사회적 기업의 매출액은 지역총생산의 2% 정도임.
- 런던市는 2007년부터 향후 13년간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 런던 사회적 기업 전략’(2020 Social Enterprise Strategy for London)을 시행 중임.
 - 이 전략은 2006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사회적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Social Enterprise Action Plan: Scaling New Heights)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방정부 계획이라는 성격을 지님.
 - 런던 사회적 기업 센터(SEL: Social Enterprise London)에서 작성한 ‘2020 비전-런던의 사회적 기업’(2020 Vision-Social Enterprise in London)에 의

하면, 런던市와 런던개발청, 런던자치구, 런던행정청, 내각사무처의 제3부문 지원실(OTS: Office of the Third Sector) 등이 파트너십을 구축해 2020년까지 지역총생산의 6%를 사회적 기업이 차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사회적 기업과 관계된 공공기관이 2007년에 실시하기로 한 정책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재정 지원, 사회적 기업의 공공서비스 제공기능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음.

<표 2> '2020 런던 사회적 기업 전략'을 위한 2007년도 관계기관의 정책 실시계획

관계기관	정책 실시계획	일 정
런던기술위원회 (London Skills Council)	- 전달체계 내의 기관으로서 사회적 기업 협회에 투자 - 대학교육을 위한 사회적 기업 전공서적 개발 - 사회적 기업의 기술 발전을 위한 기회 탐색	2007. 11 2007. 9 2007. 12
런던개발청	- 사회적 기업 솔루션을 위한 세계적 중심지로서의 런던 조성 - 사회적 기업 경영지원 컨설팅 - 사회적 기업의 기술 발전과 고용 창출을 위한 실험모델 발굴 - 경영 네트워크 및 컨소시엄 구축을 위한 업무 촉진 - 주택협회, 사회적 기업, 개발신탁회사 등이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의 조달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2007. 10 2007. 6 2007. 4 2007. 4 2007. 12
런던자치구	-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사회적 기업 모델에 투자 - 지방정부의 조달 담당 공무원에게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확실히 이해시키도록 노력	2007. 7 2007. 6
런던행정청	- 보건 및 사회보호를 위한 사회적 기업 모델에 대한 투자 촉진 -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사회적 기업 솔루션에 대한 투자 촉진 - 고용 및 기술관련 솔루션을 위한 사회적 기업 모델 장려	2007. 4 2007. 4 2007. 4
내각사무처의 OTS	- 사회적 기업의 요구에 대응하는 경영지원 전략을 집중적으로 시행	2007. 9 (~2011)

○ 2004년 4월 런던 사회적 기업 센터 출범과 함께,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위해 런던 지방정부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하는 '지방정부연락회'(Local Authorities Connect)가 만들어짐.

- 2006년 현재 이 연락회에 33개의 런던 지방정부 중 28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2020 런던 사회적 기업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지방정부가 참여할 예정임.

- 지방정부연합회는 런던의 사회적 기업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대표자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진행될 과업에 대해 토론하고, 사례를 공유해 개선점을 마련하며, 파트너십을 통해 상호 지원하고 있음.

<해설 및 평가>

- 영국은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단계에서 사회적 기업을 설립·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임.
 - 영국에서 사회적 기업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에게 직업훈련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고용 및 복지전략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음.
 - 이외에도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은 노숙인·사회취약계층 등의 지역 사회 복귀 및 거주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NPO·시민단체 등의 사회 서비스를 위한 자원 창출 등으로 다양함.
- 런던시의 경우 사회적 기업과 관련 있는 민간기관, 지방정부, 중앙정부 등이 파트너십을 구축해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만들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는 공공기관과 비영리기관이 지원적·거래적 단계를 뛰어넘어 협력적·통합적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는 2007년 1월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했음.
 - 이 법에 의하면,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의미함.
- 서울시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가능한 조직으로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노인공동체, 장애인보호작업장, 생활협동조합 등을 들 수 있음. 이 중에

서도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에 부합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하면 가장 큰 성과가 기대되는 조직은 자활공동체와 자활근로사업단이라고 할 수 있음.

·2006년 9월 현재 서울시에는 자활공동체가 70개(343명 참여), 자활근로사업단(근로유지형 제외)이 233개(2482명 참여) 있음.

- 이처럼 ‘노동+복지’의 자활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자치구와 지역자활센터 및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어 효과가 떨어짐.

·서울시 차원의 광역자활센터를 설립해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의 경우 2004년 4월에 설립한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에 연간 10억~15억 원을 지원해 사회적 기업,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벤치마킹 시행방안>

- 서울시도 서울광역자활센터를 설립해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는 체계를 갖춰야 함.

·서울시와 서울광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자활사업 관련기관 간의 협조 및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자활사업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장기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벤치마킹 기대효과>

- 현재 지극히 단순한 전달체계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활사업의 역할을 증대하고, 저소득층의 고용 및 복지 문제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 사회적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돼, 이들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박은철 도시사회부 부연구위원(parkagfe@sdi.re.kr)

1. 관광객 94%가 시내관광에 만족 (브라질 상파울루市)

○ 브라질 상파울루市 관광국에서 2006년 한 해 동안 상파울루市를 방문한 관광객 13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4%가 상파울루 시내관광에 무척 만족한다고 응답함.

- 관광객은, 시장에서는 브라질 전통음식인 파스텔(Pastel: 튀김 만두와 비슷한 음식)을 사먹고, 부유층이 사는 지역에서는 세계 각종 명품을 구경하고 유명 뮤지컬도 관람하며 다양한 전 세계 음식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상파울루市를 선택했다고 말함.

- 관광객 중 내국인은 대부분 리우데자네이루 시민으로, 상파울루市가 근대적인 市라고 응답함.

·관광객의 48%가 25~39세이고, 하루에 800헤알(약 35만 원) 정도를 지출함.

·관광객의 59%는 남성임.

·관광객의 66%는 항공편을 이용해 상파울루市에 옴.

·관광객의 82%는 관광업체를 통하지 않고 관광을 즐김.

·관광객의 59%가 내국인이고, 외국인 중 38%는 유럽관광객임.

·관광객이 주로 찾는 명소는 시립극장, 크레디트카드 홀, 파울리스타 거리에 있는 MASP(Museum of Art of Sao Paulo) 박물관, 이비라푸에라 공원, 빌라 마달레나 지역 등임.

(www.atarde.com.br/brasil/noticia.jsf?id=787639)

2. 창조·문화 산업이 경제 발전의 견인차 (런던)

○ 런던市 경제국은 최근 발간한 ‘런던市의 창조 부문 업데이트 2007’(London’s Creative Sector: 2007 Update) 보고서를 통해, 창조·문화 산업이 市 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했으며 특히 市가 세계적인 명성을 유지하는 데 근간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 2007년 8~9월 런던市에서 디자인 페스티벌, 패션 페스티벌, 프리즈 예술박람회(Frieze Art Fair), 런던 영화제, 런던 게임 페스티벌 등 각종 문화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개최돼 창조·문화 산업의 발전 면모를 과시하기도 했음.

- 2004~2005년 런던市의 창조·문화 산업 분야에 1만 8000여 명이 신규 고용됨으로써 이 분야 종사자가 런던 노동인구의 12%인 55만 명 규모로 성장했음.

·런던市는 잉글랜드 남동부 지역과 함께 영국 전체 창조·문화 산업의 57%를 점유하고 있어, 영국 내에서 문화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음.

·최근 1년간 달성한 5%의 고성장은 금융 분야 성장률의 약 2배임.

- 보고서에 따르면, 창조·문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금융산업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창조·문화 산업의 하나인 뮤지컬 등 공연예술 중심지인 웨스트엔드 지역과 금융 중심지인뱅크 지역이 인접해 있음.

·금융산업의 주 고객이 창조·문화 산업 분야인 광고·홍보·건축설계 사업주임.

(www.london.gov.uk/mayor/economic_unit)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3773)

한줄 뉴스

<브라질>

- 쿠리치바市, 무료 체중조절 프로그램 실시 1년 만에 성공적인 성과 얻어

- 벨로리존테市, 유기되거나 잃어버린 맹견을 신속히 찾기 위해 맹견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도록 하는 법 시행

3. 사업별 평가결과를 토대로 예산 배분 (일본 교토府 무코우市)

- 일본 교토府 무코우市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행정 평가 결과를 공표함.
 - 2005년부터 실시한 93개의 장기 사업의 효과와 효율성을 검증했는데, 50개 이상의 사업이 재정문제로 폐지 또는 축소 대상이 됨.
 - 평가는 담당과에서 시작해 시장과 부장급 직원으로 구성된 경영회의 등 3 단계로 실시됐음.
 - 평가 결과, ‘확충·중점화’가 1건, ‘이대로 지속’이 29건, ‘축소’가 34건, ‘폐지 검토’가 18건, ‘차년도부터 폐지’가 1건, ‘완료’가 1건이었음.
 - ‘폐지 검토’로 평가받은 사업은 ‘고령자 주거비 지원’과 ‘재택 간병인 지원금 지급’ 등임.
 - ‘확충·중점화’가 필요한 사업은 ‘세금수납 강화’로, 징수 체계를 적극 확립 하도록 지적됨.
 -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은 사업 달성률이 50%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물 공급 관점에서 볼 때 사업을 시급히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평가받음.
 - 이번 평가결과는 2008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예정임.

(교토신문, 2007. 9. 6)

(headlines.yahoo.co.jp/hl?a=20070906-00000043-kyt-126)

한줄 뉴스

<베를린>

- 환경보전을 위해 1년간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생태 자원봉사의 해’ 프로그램에 청소년 285명 참가
- 예술가의 첫 번째 카탈로그나 웹사이트 등의 제작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2008년 조형예술 지원사업 실시

디지털 도시

4. ‘벨리브’ 자전거 정류장에 블루투스 시스템 도입 (파리)

○ 파리는 파트너십을 맺은 카멜레온社와 함께 블루투스 모비가이드(Bluetooth MobiGuide)를 파리 1, 2, 4구에서 시험운행 중임.

- 각 區에서 자전거 대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벨리브(Velib) 자전거 정류장에 블루투스 장치 20개를 설치함에 따라, 행인은 거리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인터넷 접속 등을 무료로 할 수 있게 됨.

· 블루투스란 근거리에 있는 컴퓨터와 휴대폰 등을 서로 무선으로 연결하는 통신체계임.

- 이 시스템은 ‘디지털 파리’계획의 하나인, 무선통신을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음.

(www.paris.fr/portail/Economie/Portal.lut?page_id=7903&document_type_id=4&document_id=30420&portlet_id=18210)

복지 · 문화

5. 노약자와 장애인의 버스 이용 무료화 (영국)

○ 영국 교통부 장관은, 2008년 4월부터 노약자와 장애인이 잉글랜드 지역에서 운행 중인 모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을 최근 발표함.

- 버스 무료이용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만 가능함.

· 현재 60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은 지역 내에서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계획이 시행되면 무료이용 범위가 잉글랜드 전역으로 확대 되는 것임.

- 영국정부는 2008년 4월 이후에도 매년 약 5000억 원을 투자해 이 계획을 확대실시할 예정임.
- 이와 관련해 새로 도입하는 버스패스는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카드로 만들 예정임.
 - 교통부 장관은 스마트카드를 통해 이용자의 버스 이동정보를 쉽게 확인해 버스와 자치구의 요금 정산을 확실히 할 수 있고, 수백만 명의 노약자와 장애인은 비용부담 없이 멀리 사는 가족과 친지를 쉽게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www.gnn.gov.uk/environment/fullDetail.asp?ReleaseID=315509&NewsAreaID=2&NavigatedFromDepartment=False)

>>> 전문가 검토의견

- 서울시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교통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지하철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액으로 지급하는 교통수당을 영국과 같이 버스패스로 전환하면 이용이 편리할 뿐 아니라 실제 이용한 금액만큼만 지원되므로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장애인의 경우는 지하철 요금만 면제되고 있는데, 이를 버스까지 확대한다면 장애인의 교통비 절감 및 사회참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하지만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함.
 - 장애인의 버스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료 이용도 필요하지만, 저상버스 보급을 늘리고 버스 내 휠체어 공간을 확보하는 등 물리적 환경을 먼저 개선해야 함.

/김경혜 도시사회부 선임연구위원(khkim@sdi.re.kr)

6. 학교 내 왕따 방지 실행헌장 제정 (영국)

○ 영국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는 학교 내 왕따(bullying) 행위를 막기 위한 실행헌장(A Charter for Action)을 제정함.

- 이 헌장은 왕따 행위를 막기 위해 학교가 벌이는 일종의 캠페인으로, 학교가 이 헌장에 서명함으로써 참여하게 됨.

- 이 헌장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협조해 학교에서 왕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행동지침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왕따 행위를 막기 위한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과 모니터링 실시
- 왕따 행위를 막기 위해 교사를 적극 지원
- 왕따 행위의 심각성을 학생에게 인지시키고 협조 요청
- 왕따 행위가 발생하면 교사와 부모에게 즉각 통보하도록 유도하고, 부모와 교사 간의 상호협조 확보
- 왕따 행위 예방 모범사례에 대한 관심과 배움의 자세 견지. 필요한 경우 자치구에 협조 요청

(www.teachernet.gov.uk/_doc/11912/Bullying%20-%20A%20Charter%20for%20Action.pdf)

>>> 전문가 검토의견

- 영국에서 제정한, 학교 내 왕따 행위를 막기 위한 실행헌장은 왕따 학생의 고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 및 지원임.

·사전 예방 프로그램 운영은 왕따 발생 후의 조치보다 왕따로 인한 정신적·정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첩경임.

- 우리나라도 왕따 및 학교폭력이 문제되고 있어 대처방안으로 교육부 주도의 학교폭력 지원단, 학교폭력 지원 시범학교, 학교폭력 SOS 지원단을 운영 중임.

·일례로 제주도교육청은 한시적으로 길거리 상담센터를 열어 왕따 행위와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의 고통을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서울시도 서울시교육청과 연계해 적극적인 왕따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왕따 피해 학생에 대한 사후 상담 지원 및 가해 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市 차원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혜숙 도시사회부 부연구위원(lhsook1@sdi.re.kr)

7. ‘2007 베를린 자조시장’ 개최 (베를린)

- 2007년 9월 8일 베를린市에 있는 샤를로텐부르크 성에서 ‘2007 베를린 자조(自助) 시장’이 개최돼, 건강 분야와 사회심리, 사회문제 등을 망라하는 약 2000개의 자조 분야 프로그램과 전시 및 발표회가 열렸음.

- 각종 자조집단, 자조 프로젝트, 자조협회, 시민참여 집단, 시민발의 및 도시부문 프로젝트 관련 자원봉사자나 활동가가 활동내용과 참여방안 등을 발표함.

- 베를린市 통합·노동·사회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베를린市는 시민의 활발한 참여로 이룩된 도시다. 이번 자조시장에 14세 이상 베를린 시민 중 29%가 참여했으며, 2007년 자원봉사 참여비율은 2006년보다 5% 늘었다. 베를린市는 시민 코뮌을 추구한다. 이는 시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함.



- 市는 시민의 명예로운 참여를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를 위해 자원봉사증명서 제도를 도입함.

(www.berlin.de/buergeraktiv)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09/07/84907/index.html)

8. 해변에 장애인용 매트 설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는 신체 장애인이 코파카바나 해변 모래사장에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바닷물 근처까지 갈 수 있는 매트를 설치해 테스트함.

- 휠체어 이용자와 아이를 안은 엄마, 노인 등은 대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매트를 이용함.

·휠체어를 탄 한 시민은 매트 이용에 크게 만족해, “휠체어를 타고는 해변 모래사장에서 움직이기도 어려웠는데, 매트가 설치된 후에는 편하게 움직일 수 있어 바다를 마음껏 구경할 수 있었다.”고 말함.

(noticiasrio.rio.rj.gov.br/index.cfm?sqncl_publicacao=2526)

9. ‘교육, 양육, 돌봄’을 위한 지역전략 제안 (베를린)

○ 베를린市 교육·학문·연구부 차관은 ‘교육, 양육, 돌봄’ 포럼에서 “베를린市의 도시발전 전략은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지방정부 내 다부서가 연계된 실행전략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경제력이나 출신배경 등에 따라 교육 수준이 좌우되는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함.

- 아동과 청소년의 발전 및 미래를 위해 지역에서 책임지는 구조와 업무형태가 주요 내용임.

- 교육효과 개선을 위해 새로운 학교법 제정과 포괄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함.
·학교 본연의 책임과 역할뿐 아니라 학교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열린 학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함.

·주요 과제로 학업격차 극복과 폭력 예방, 졸업하지 못한 학생 문제 해결 등을 제시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09/13/85163/index.html)

도 시 환 경

10. 거리에 나무 심으면 세금 감면 (브라질 상카를로스市)

○ 브라질 상카를로스市는 집 앞이나 마당에 나무를 심을 경우, 2008년부터 토지가옥세를 감면해 줄 계획으로, 시정부에서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나무 외에 잔디 및 식물을 심어도 토지가옥세의 최대 4%에 달하는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거리에 10m 미만의 나무 1그루를 심을 경우, 2%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시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녹지가 있는 부동산 정보를 등록하고 감면혜택을 요청하면 됨.

- 市는 2007년 10월부터 세금 감면혜택 제공 여부를 결정할 등록정보 확인 작업에 돌입함.

(oglobo.globo.com/sp/mat/2007/09/16/297747743.asp)

>>> 전문가 검토의견

- 시민이 적극적으로 녹화하도록 하기 위해 토지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수목 및 녹화장소 제공, 기술 지도, 예산 지원 등의 방안과 함께 녹화 추진을 위한 좋은 인센티브 제도임.

· 시민이 직접 녹화하고 보상을 받으므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됨.

- 서울시는 시민이 녹화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7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시민녹지’, ‘녹지협정’ 등의 방안을 마련했으며, 추후 적극 시행할 예정임.

·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시민이 직접 선정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직원이 검토해 조례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는 체제를 갖춰야 함.

· 수목 식재에 따라 토지세나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세제 혜택은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적용해야 함.

/김원주 도시환경부 부연구위원(wjkim@sdi.re.kr)

11. ‘기후변화 챔피언’ 임명 (영국)

○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는 기후변화를 예방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대책 강령’(Act on CO₂)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챔피언’(Climate Change Champion) 9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 11~18세 청소년이 대상이며, 청소년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청소년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하기 위한 것임.

- 선정된 청소년 9명은 정부 사무실에서 1년간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야 함. 챔피언의 주요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
- 현장탐사를 통해 기후변화의 현실 파악과 다른 지역의 대책 조사
- 정부 고위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챔피언의 의견 반영
- 챔피언 소속 학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관련 행사에 약 200만 원 지원

(www.defra.gov.uk/news/2007/070920a.htm)

12. ‘에코포인트 제도’ 도입 (일본)

○ 일본 환경성은 2008년부터 에너지 절약 제품을 구입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에코포인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함.

-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은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있는 에어컨이나 자동차 등 에너지 절약형 제품과 에코마크가 붙은 재활용 제품임.

- 포인트로 상품권 등을 살 수 있음.

- 환경성은 이 제도 도입을 위해 대형 체인점이 있는 마트나 대규모 상가가 있는 지역 10여 곳을 선정하고 4억 엔(약 32억 원)을 출자함.

(요미우리신문, 2007. 9. 4)

13. 수도관을 이용한 발전시설 완공 (일본 요카이치市)

- 일본 요카이치市는 2006년 2월 착공해 2억 엔(약 16억 원)의 사업비를 들인 끝에 수도관을 이용한 발전시설을 다카오카(高岡) 배수지에 건설함.
 - 정수장과 배수지의 표고 차이를 이용해 수도관에 흐르는 물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 발전(發電)함.
 - 배수지와 정수장의 표고 차이는 85m임.
 - 매초 0.5톤의 유량이 흐르며, 연간 124만kW(일반 가정 350세대 분)의 발전 능력이 있음.
 - 여기서 생산된 전력은 대부분 전력회사에서 매입함.
 - 市 담당자는 “발전량은 적지만 자원 및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함.
(chubu.yomiuri.co.jp/news_kan/kan070327_5.htm?from=goo)

도 시 교 통

14. ‘스마트 포스터’로 교통정보 제공 (런던)

- 런던교통공사는 신기술인 ‘Field Communication’(일정지역 내 무선통신 연결시스템)을 이용해, 지하철역에 접근한 통근자가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앞으로 이동할 구간의 상세정보와 주변지역 지도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스마트 포스터’(Smart Poster)를 설치·운영할 계획임. 사업명은 ‘실시간 교통정보의 시각화’(Visualisation of Real-time Transport Interchange)임.
 - 런던교통공사,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교통정보회사인 키Zoom(Kizoom)社가 공동 개발했으며, 현재 도심 지하철역인 블랙프라이어스(Blackfriars) 역에 스마트 포스터 19개를 설치해 3개월간 시범사업을 진행 중임.

·런던교통공사가 2006년 영국 정부에서 받은 기술개발상 상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스마트 포스터는 전원 없이 작동하며 이용자가 접속해서 정보를 받을 때는 접속한 이용자의 휴대폰 전원을 이용하도록 설계돼, 친환경적인 첨단 교통 정보 체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현재 스마트 포스터와 연결해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휴대폰 기종은 한정돼 있지만, 2007년 말까지 500여 종으로 호환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www.london.gov.uk/londoner/07oct/p2b.jsp?nav=news)

>>> 전문가 검토의견

- 런던교통공사의 스마트 포스터는 ‘관광도시 런던’을 구현하려는 런던시의 전략이 포함된 것으로, 서울시도 유사한 사업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06년에 25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한 런던시는 향후 관광객 수를 5000만 명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스마트 포스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1000만 명 관광객 시대를 꿈꾸는 ‘관광도시 서울’ 실현전략 모델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일반 교통정보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연계하는 경로 중심으로 운영되나, 스마트 포스터는 여행자의 현 위치를 중심으로 이동구간의 상세정보와 주변지역 지도를 제공해, 보행자나 여행자를 배려하려는 속성이 강함.

- 서울시의 U-Seoul 및 U-Transport의 비전과 연계해 스마트 포스터와 유사한 개념을 보행자 정보 시스템에 도입하고, 개인이 요구하는 다양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중장기 발전전략을 검토해야 할 것임.

/신성일 도시교통부 연구위원(ssi@sdi.re.kr)

15. 실시간 주차정보 검색 사이트 운영 (파리)

- 파리가 주차공간을 검색해 주는 웹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라, 시민은 공공 주차장과 상업시설 무료 주차장 등 파리 시내의 1000여 개 주차장 정보와 2만여 개의 거주자 주차공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음.

- 파리의 홈페이지(www.paris.fr)의 오른쪽에 있는 파리 교통지도 아이콘을 누르면 지도가 나타남. 여기에서 시내 주차장 정보 메뉴를 누르면 주차장 정보 지도가 나타남.

- 자신이 주차하려는 곳의 주소를 넣어 검색할 수도 있음.



(paris-a-la-carte-version-pl.paris.fr/carto/mapping)

(www.paris.fr/portail/deplacements/Portal.lut?page_id=2&document_type_id=2&document_id=32142&portlet_id=826)

>>> 전문가 검토의견

- 실시간 주차안내시스템 구축의 가장 큰 목적은 운전자가 주차공간을 찾아 헤매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통행을 줄임으로써 운전자의 시간 낭비, 연료 소모, 이에 따른 차량 배출가스 등을 줄이는 데 있음. 따라서 단순한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도시교통 문제 해결책의 한 수단으로 인식해야 함.

- 웹사이트를 통한 주차정보 제공 외에도 주차 수요가 많은 도심부나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제공되는 실시간 주차안내시스템의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서울시도 실시간 주차안내시스템 구축을 통해 불필요한 통행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도심부 등 교통혼잡이 극심한 지역을 우선 서비스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교통수요 관리와 연계된 주차정보 체계를 갖춰야 할 것으로 판단됨.

/고준호 도시교통부 부연구위원(jko@sdi.re.kr)

16. 버스 요금은 내리고 저소득층 지원은 높여 (런던)

- 런던시는 2007년 9월 말부터 선불형 교통카드를 이용할 때 버스 편도요금을 현행 1파운드(약 1900원)에서 90펜스(약 1700원)로 10% 하향 조정함.
 - 버스요금이 편도 90펜스(약 1700원)면 영국에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늘어난 승객 수에 따른 버스요금 수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의미로 요금 인하를 단행하게 된 것임.
 - 시는 더 많은 시민이 저렴한 요금으로 빠르고 믿을 수 있는 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버스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음.
 - 다른 지역에서는 버스 이용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으나, 런던시에서는 지난 7년간 버스 이용자 수가 45% 증가함.
 - 버스 노선과 배차차량 수도 함께 늘어나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운행되는 심야버스는 2000년 57개 노선에서 2006년 100개 노선으로 증설돼 운행 중임.
 - 현재 런던 시내에서 하루 버스 이용횟수는 약 6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한편, 생활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장기 투병 환자 등에게는 버스 와 트램 요금을 50% 할인해 약 25만 명의 시민이 2007년 9월 말부터 편도요금을 45펜스(약 850원)만 내도록 했음.
 - 소득 지원을 받는 시민은 별도로 할인카드를 발급받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음.

(www.tfl.gov.uk/discountcard)

(www.london.gov.uk/londoner/07oct/p1a.jsp?nav=news)

(www.london.gov.uk/londoner/07oct/p8a.jsp?nav=news)

도시계획·건설·주택

17.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그린벨트 개발 불허 (런던)

- 런던시는 한 어린이집이 킹스톤 어폰 템스 구청(Kingston-Upon-Thames Council)에 신청한 그린벨트 지역 내 주차장 및 어린이 놀이시설 확장건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해당 구청에 보냄.
 - 현행 영국 계획법제에 따르면, 그린벨트 지역 내 건물을 신규·확장 개발할 경우 개발에 따른 피해를 상쇄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납득할 만한 조치 계획을 함께 제출해 해당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해당 어린이집은 2002년에 이미 같은 내용으로 도시개발계획안을 신청한 바 있음. 당시 정부 계획심사관이, 개발에 따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2004년 런던시 계획심사관은 기존 건축물이 사용·배출하는 생태적 용량 안에서 개발계획을 세우도록 권고했으나, 해당 개발주체가 시와 정부 계획담당자의 권고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채 그린벨트 개발계획을 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3813)

한줄 뉴스

<런던>

- 파리시에서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자전거 대여서비스 제도 도입 검토
- 영국 어린이·학교·가족부와 함께 기술교육훈련 확대 등 런던시 유·청소년 사업에 6000만 파운드(약 110억 원)를 투자하기로 결정

18. 디자인과 재료산업 간 네트워킹 추진 (영국)

- 영국 ‘재료지식 교환 네트워크’(Materials Knowledge Transfer Network)란 단체는 장소성 창출과 지속가능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료 개발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London Design Festival)에서 밝힘.
- 디자인 혁신에 있어 재료 개발과 재료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네트워크 관계자는, 영국은 디자인과 재료기술 두 영역에 강점이 있으며 두 영역의 관련 산업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결성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함.
- 이를 위해 ‘재료와 디자인 교환 프로그램’(Material and Design Exchange Initiative)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임.

(www.rudi.net/node/17931)

19. 도시계획시스템에 디자인 표준 도입 제안 (영국)

- 영국 건축환경위원회(CABE: The 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는 ‘삶을 위한 건물’(Building for Life)을 위해 20개의 디자인 원칙을 도시계획시스템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건축환경위원회는, 주택의 질을 높이는 것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면서 도시계획시스템에 디자인 원칙을 적용할 것을 강조함.
- 최근 정부감사에 의하면, 영국 주택의 80%는 디자인 질이 표준에 미치지 못함.
- 특히 런던의 경우 2020년까지 약 300만 호의 주택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디자인 표준 적용이 중요하다고 말함.

- 건축환경위원회는 ‘삶을 위한 건물’의 표준을 도시계획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정부의 ‘주택 녹색’(green paper) 컨설팅도 진행 중임.

(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739314/CABE-calls-legal-adoption-standards)

방재 · 안전

20. 자동 공중화장실 철거 검토 (시애틀)

- 미국 시애틀市는, 2004년 3월에 약 62억 원을 투자해 만든 자동 공중화장실 (Automated Public Toilet)이 최근 마약거래나 매춘의 근거지가 되고 있어 이를 철거하는 것을 검토 중임.

- 자동 공중화장실은 사용 후 3분 동안 자동으로 청소되는 시스템을 갖춰 시애틀市뿐 아니라 뉴욕市, 로스앤젤레스市, 런던市 등 600여 개 도시에 설치돼 있음.

- 시애틀市의 경우 최근 이곳에서 마약거래나 매춘 등의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2006년 가을에는 지역 방송국이 이곳에서 이뤄진 마약거래를 취재해 방송하기도 했음.

·이러한 문제 때문에 市는 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기로 함.

·화장실을 철거할 경우 생기는 약 7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자동 공중화장실 5개의 철거를 검토 중임.

(www.sfgate.com/cgi-bin/article.cgi?file=/c/a/2007/09/16/BACDS2C5N.DTL)

21. 주택 내진 건축 시 인센티브 강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市)

-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市는 최근 지진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주택 내진 건축 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함.
 - 주택 내진설계는 생명 보호뿐 아니라 재산 보호에도 매우 효과적임.
 - 이미 캘리포니아주의 주택 내진 건축기준을 따른 버펄로 대학의 실험은 내진설계가 주택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줬음.
 - 오클랜드市에 있는 주택 가운데 85%는 내진설계 기준이 제정되기 전에 지어져 지진에 취약한 상황이고, 주택 소유주는 내진설계 시 건축비용이 상승하므로 내진설계를 따르지 않는 실정임.
 - 오클랜드市는 오래 전에 지어진 주택을 새로 구입한 소유주가 내진설계에 따라 주택을 고치는 경우 5000달러(약 468만 원)를 지원함.
 - 市는 앞으로 주택 내진 건축 시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지진에 강한 주택을 더 많이 짓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음.

(www.oaklandnet.com/HomeownerSeismicstrength.pdf)

한줄 뉴스

- 영국 노퍽 카운티, 약 1조 8000억 원을 투자해 예전 비행장 부지에 1만 가구 규모의 에코타운 건설 계획
- 파리市, 9월 15~16일 '문화재의 날'에 평소 접근하기 힘든 건축 문화재·유물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모든 문화재 관련 시설을 무료 개방
- 일본정부, 국민이 생활의 풍요로움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아름다운 나라 2010 생활 개선 프로그램'을 3년간 집중 실시할 계획